

## OCI, 폐석회위원회가 민관협력 최우수상

OCI는 본사의 폐석회 처리를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폐석회처리시민위원회>가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시민단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월16일 발표했다.

공모대회는 민관협력포럼(KGF)이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해 장려하고 우수 협력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2011년에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폐석회시민위원회는 인천시, 남구, 시민단체 대표, OCI 관계자 등 폐석회 처리에 관련된 기관, 관련기업, 시민단체로 2002년 구성돼 지역 현안인 OCI의 폐석회 580여만<sup>m</sup>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 도출 및 시행한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회의 합의내용은 유리의 주원료인 소다회의 부산물로 다소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폐석회로 OCI의 유수지 33만여<sup>m</sup>를 매립해 시민공원으로 만들고, 대체 유수지로 인천대공원 인공호수를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OCI는 수십 년 동안 유리의 주원료인 소다회를 생산하면서 나온 부산물인 폐석회를 인천공장 주변 곳곳에 쌓아 놓았고 2000년 초 처리를 둘러싸고 OCI와 행정기관, 시민 사이의 의견이 달라 당시 지역 현안으로 부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7>